

來사업 책임자가 예산 수립 ‘총본산 성역화 불사’ 집중

중앙총무기관 팀장급 총무원 소속 인사

조계종이 지난 14일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팀장급 총무원에 대한 인사를 소속으로 단행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석심 전 총무차장이 맡게 됐으며, 총무차장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총무팀장은 윤승환 전 기획팀장이, 사찰교무팀장은 권대식 전 국제팀장이 맡게 됐다. 또 기획팀장은 김용구 전 사회팀장이, 사회팀장과 국제팀장은 각각 양원준, 김기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이 맡게 됐다. 호법팀장은 전인동 전 사찰교무팀장이 맡게 됐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올해 종단 핵심과제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집중하고 일부 부서 팀장급 총무원의 사직과 안거 휴가 등으로 인한 총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업무에 대한 집중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그동안 연말 정기인사는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한 총무원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총무원들이 다른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일치시키기 위해 7월 인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인사는 이번 인사 결과를 평가한 뒤, 총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7월 인사를 정기인사로 정착 시키기로 했다.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일치시켜 업무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석심 △총무팀장 윤승환 △사찰교무팀장 권대식 △기획팀장 김용구 △사회팀장 양원준 △국제팀장 김기원 △호법팀장 전인동.
임태규 기자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

국민대통합위원 위촉

조계종 제16대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사진)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사회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자문 기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성문스님을 비롯해 연기자 이순재 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교구장대리인 박신언 신부를 새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성문스님은 앞으로 1년의 임기동안 지난 1.2기 위원을 맡았던 범등스님에 이어 국민 소통 및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과 관련 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추진위원장·총무원장 대화 제의도 거부한 선학원 임원진

원로회의 의장단 초청은 응할까...

원로회의가 의장단 차원에서 종단과 선학원의 만남을 제안한 가운데, 그동안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3항을 이유로 일제 종단과의 대화를 거부해 온 선학원 측이 이번 만남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14일 선학원 측에 오는 23일 낮1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선학원 이사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공식 제안했다. 이번 만남 제안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의 중재 요청을 받아 들어 원로회의 의장단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로회의 차원의 만남 제안은 선학원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원로회의 의장단을 비롯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과 선학원 이사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종단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회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원로의원 스님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는 인식 하에 조계종 단일승가 및 화합승가 구현을 강조하며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의 노력과 역할을 주문해왔다. 지난 3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출범식 당시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진제 중정예하의 교시를 대독하며 “종단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학원과의

종단은 대화의지 변함없이
23일 만남 성사여부 주목

종단의 대화 요청에 대한 선학원 입장

3월	선학원정상화추진위 만남 제안 종헌 9조3항
·법인법 존재하는 한 대화 불가	
5월	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 제안
·별된 정계 원상회복 등 합의안	
·법인법 폐지 없이 대화불가	
7월	총무원장 스님 ‘대화’ 제안에도 공문 통해 ‘대화불가’ 입장 밝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계종 단일승가 구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으며, 원로의원 월탄스님도 “조계종과 선학원이 둘이 아님을 알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종단 등록을 거부하며 독자 행보를 보여 온 선학원 측이 이번 제안을 수용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단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번번이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만남 제안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선학원 이사장과 이사 별된 정계의 원상회복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총회의원 2석 배정 등 합의안 제안, 법인법, 종헌 제9조3항에 대해 논의하지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선학원 이사진 초청 간담회 제안 역시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로회의의 제안인 만큼 선학원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화 거부의 뜻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 한 관계자는 “원로회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만남에 앞서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원로 스님들의 제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게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스님은 “(선학원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社 告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

‘보살사상 실천 근본도량’ 금강선원이 불교신문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유일의 이 대회는 대상인 조계종총무원장상(2회)에 이어 체험수기 공모, 서울시장상과 단체전 신설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민족문화유산인 강송대회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Ⅰ일 정 : 2015년 10월17일(토) 08:30~18:00

* 1교시 : 외워쓰기(개인전) * 2교시 : 암송(개인전)
* 3교시 : 합송(단체전) * 4교시 : 결선(개인전)
* 결과발표 및 시상식/ 수행수기 발표/ 순당의례

Ⅰ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www.tanheo.org)

서울시 강남구 반포대로 14길 13-51

Ⅰ주 관 : 탄허불교문화재단, 탄허기념박물관

Ⅰ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포교원, 서울시, BBS불교방송.

Ⅰ응시부문 : 개인전(외워쓰기, 암송) 단체전(합송) 수행수기

* 개인전과 단체전, 수행수기 중복 응시 가능

Ⅰ응시자격 : 성인 일반부, 학생부(초, 중, 고, 대학생·학생증 첨부)

Ⅰ접수기간 : 2015년 7월1일 ~ 9월30일

Ⅰ접수 및 문의처 :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금강선원 홈페이지 및 다음카페

-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445-8426/ FAX: 02) 445-8043

Ⅱ시험 유형 및 출제

【개인전】 필기 및 강송

필기 : 금강경 32개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초, 중, 고,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 대학생은 성인 일반부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교재 : 금강선원 <금강경독송집>,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 필기와 강송 우수자 선정 후 질의응답으로 4교시 결선 진행

【단체전】 5명 이상(도반, 가족, 직장 동료 등)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탐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3분 이내, * 중국어 지원 가능.

Ⅲ시상 : 대상 1000만원

일반부 :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단체전 : 단체상 100만원(3팀), * 각 부문 특별상 수여

Ⅳ주최 : 오대산 월정사, 금강선원, 불교TV, 불교신문

조계사 1억, 대흥사 1천만원 대지진 네팔 돕기 성금 기탁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으로 향하는 발길이 7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 1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점진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많은 금액을 모으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후원자들과 논의해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데 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사에서 주지 원명스님과 부주지 담화스님, 행정국장 성진스님 등이 배석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도 이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수고가 많다”며 구호기금 마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사찰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범각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배려로 사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내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000배’ 정진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스님)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두 명의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1000배 정진을 했다.〈사진〉

노동위는 이날 기도에서 4·16연대, 장교 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사혁신처 규탄 및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혁신처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거부한 회신을 철회하고 다시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계종 노동위 주최로 열린 1000배 정진에는 노동위원 도철스님을 비롯해 김초원·이지혜 씨 유족, 권승복 박문진 노동위원 등이 참가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Silkroad
tour in your own life

Dalai Lama's Dharma Teaching

제13회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15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천여분의 티베트 스님과 수많은 대중이 동참하는 법회를 통해 설하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은 불자로서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행사일정

A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과 인도성지 순례 14일 (8월 31일~9월 13일) - 299만원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력나우-다람살라-델리-아그라-델리-인천

B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 8일 (9월 5일~9월 12일) - 229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C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과 네팔 봉사 11일 (9월 2일~9월 12일) - 279만원

인천-카트만두-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 주 관 : 티벳대승경역경원

※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 상기금액은 행사 공양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7월 31일까지(선착순)

(주)실크로드여행사

TEL 02)720-9600 FAX 02)734-9937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9층(S&S빌딩)